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

이미영, 장은진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Subtypes based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Mi-Young Lee, Eun-Jin Chang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조사를 통해 6요인(인지충동성, 무계획충동성, 우울, 불안, 또래동조성, 주장성), 19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여, 86명의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 74명의 자료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3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 ‘충동적 취약성 유형(군집1)’, ‘정서적 취약성 유형(군집2)’, 그리고 ‘사회적 취약성 유형(군집3)’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의 특성은 첫째, 군집1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인지충동성과 무계획충동성의 점수는 높은 반면, 우울과 불안 점수는 낮았다. 둘째, 군집2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우울과 불안 점수는 높은 반면, 인지충동성과 무계획충동성 점수는 낮았다. 셋째, 군집3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또래동조성 점수는 가장 높았으며 동시에 주장성 점수는 가장 낮은 반면, 인지충동성과 무계획충동성, 우울과 불안은 낮았다. 본 연구 결과는 현장에서 가해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교사들 및 상담자들과 보호자에게 가해학생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심리적 특성, 유형, 군집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subtypes of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based on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classify the students, questionnaires/interviews which consist of 6 factors (Cognitive Impulsivity, Unplanned Impulsivity, Depression, Anxiety, Peer Conformity, and Self assertion) and 19 questions were administered to 86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Then, a two-step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survey results of 74 perpetrators. As a result, three clusters were identified and named as follows: 1) Impulsive Vulnerability, 2) Emotional Vulnerability, and 3) Social Vulnerability. Scrutinizing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the first cluster, Impulsive Vulnerability, showed higher scores on Cognitive Impulsivity and Unplanned Impulsivity, compared to the other two clusters, while Depression and Anxiety scores were lower. The second cluster, Emotional Vulnerability, showed higher scores on Depression and Anxiety, while Cognitive Impulsivity and Unplanned Impulsivity scores were lower. The third cluster, Social Vulnerability, showed the highest score on Peer Conformity among the three clusters. However, Self assertion scores were the lowest in this cluster, and Cognitive Impulsivity, Unplanned Impulsivity, depression, and anxiety scores were lower than in the others. This study will provide a useful insight for facilitating teachers and parents' 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chool violence perpetrators and thereby contributing to effective intervention.

Key Words : School violence,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btypes, Cluster analysis

* This study is based on a revision of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Lee, Mi-Young (2015.6.30) and is also based on a paper presented in the form of a poster at the 2015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Received 12 February 2016, Revised 18 March 2016

Accepted 20 April 2016, Published 28 April 2016

Corresponding Author: Eun-Jin Chang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Email: ejchang@kbtus.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오랫동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1]. 학교폭력이 저 연령화, 집단화, 교묘화, 지속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2], 사이버 괴롭힘의 급증,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둔감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변하는 폭력의 악순환, 성추행과 성폭력의 점진적 증가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3].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4)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율은 2007년에 15.1%였고, 이후 2008년에는 8.5%로 감소하다가 2011년 15.7%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3년 가해율은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약 6%의 가해율을 보이고 있어서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 후 일어난 일에 대한 질문에 '피해학생에게 사과했다'가 38.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26.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전과 같이 가해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전체의 15.4%로, 2012년 11.3%와 비교해 볼 때 증가 추세에 있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2].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2차 피해 확산을 막고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법을 제정·개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법적 개입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ender와 Losel(2011)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이후에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가해자가 되기 쉽고, 또한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약 25% 정도가 성인기에 범법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따라서 학교폭력 현상을 줄이는데 있어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때 폭력가해자가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상습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청소년기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재발방지와 학교폭

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가해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충동성과 공격성, 불안과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자기통제력,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 신체적·정신적 장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부족, 스트레스 등과 같은 개인 요인[5,6], 부모의 독재적·방임적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관계, 부모의 불화, 부모의 지시와 감독의 부재 등과 같은 가족 기능과 관련된 가정 요인[7,8,9,10],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 교사의 체벌, 부정적인 학교환경과 같은 학교 요인[2,11], 부정적인 또래관계, 또래동조성, 비행또래집단과의 접촉 등과 같은 또래 요인[12,2], 그리고 대중매체에서의 폭력, 유해환경, 경쟁적 사회풍토,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등과 같은 지역사회 요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2,11]. 학교폭력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을 한 최운선(2005)의 연구에서, 가해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개인 변인이 학교폭력 가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가해관련 다양한 변인 중에서도 가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해 학생의 특성을 다룬 연구들은 폭력행동을 유발시키는 개인 내적인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개입방법의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특성연구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하나의 동질적인(homogeneous) 집단으로 간주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순수한 가해자와 이전에 피해를 경험한 가해자 즉, 중복경험자를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가해집단보다는 중복경험집단에서 공격성과 불안, 우울, 수치심이 더 높았고, 중복경험집단보다는 전형적인 가해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으며[13,14], 가해집단이 중복경험집단에 비해서 공감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즉, 두 집단의 청소년이 동일하게 가해행동을 하더라도 그 심리적 배경이 상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재발방지를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개입해야할 요소가 단일요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그 요소를 다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해학생들을 한 가지 유형으로 간주하고 개입하려는 시도들은 개입의 타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유발

하는 핵심 기제를 중심으로 가해 학생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별 특성에 맞는 개입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Del Elliott(1985)는 청소년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에 근거하여 네 가지 유형, 즉, 상황적, 관계적, 약탈적, 정신병리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16]. 보다 학교장면의 폭력에 초점을 맞춘 Macklem(2003)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크게 공격적 가해자와 수동적 가해자로 구분하였다[17]. 현재까지 국내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유형을 분류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해자를 면담하여 질적 연구한 이미영과 장은진(2015)은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조건화된 동조적 유형과 정서적으로 취약한 유형, 그리고 반사회적 성격 성향 유형으로 분류하였다[18]. 김현욱과 안세근(2013)은 모토노리 등(2005)이 제시한 학교폭력 가해 유형 일곱 가지(학교폭력 쾌감형, 스트레스발산형, 학교폭력 정당화형, 학교폭력 후회형, 냉담놀이형, 전능감 추구형, 학교폭력 노출 공포형)를 소개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개입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19,2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가해 청소년들을 유형으로 분류하여 접근하고자 시도해왔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 되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학교폭력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을 구분한 연구와 가해집단과 가피해 중복경험집단을 구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해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김현욱과 안세근(2013)이 인용한 모토노리 등(2005)의 가해 유형 분류는 실증적 연구가 아닌 이론적 연구에 바탕을 둔 분류이며, 제시된 일곱 가지 유형 또한 그 분류 기준이 가해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과 가해 행동 후에 행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 혼합되어 있고, 심리적인 특성과 행동적인 특성이 혼합되어 있어서 가해자를 구분한 준거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Macklem(2003)이 분류한 공격적 가해자와 수동적 가해자 두 유형은 가해자의 행동적 특성을 기능적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들의 심리적인 특성에 맞추어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폭력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폭력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심리 기제에 초점을 맞추어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심리적인 개입 및 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유발하는 서로 다른 핵심 기제를 적용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심리적인 특성에 따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

학교폭력 가해자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동성: 충동성은 계획능력의 부족,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빨리 반응하려는 성향, 자극추구 성향, 그리고 지연된 보상보다는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것 등의 자기조절의 문제를 반영하는 다양한 범위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21]. 충동성이 높은 학생은 괴롭힘의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22], 이들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지배욕을 충족시키는 목적의 성취라는 긍정적 강화를 통해 자신의 폭력적 행동을 더욱 더 강화시켜 나간다고 볼 수 있다[23].

우울과 불안: 청소년의 우울 증상은 반사회적 행동, 가출, 공격성, 사회적 철회 등의 가려진 우울증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24,25]. Yen과 동료들(2010)의 연구에 의하면 폭력 피해 청소년 집단은 우울문제만 있었지만 폭력 가해 청소년 집단은 우울문제뿐만 아니라 폭력 등의 문제행동도 함께 나타냈다[26]. 또한 청소년은 발달과정 상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겪고 혼란과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며, 신체적인 변화와 정서의 가변성으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수경과 오인수(2012)의 연구에서도 폭력 청소년들은 대체로 불안이 높다고 하였으며[22],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약 50%가 우울이나 불안의 내재화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27].

또래동조성: 청소년기로 갈수록 또래친구와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동시에 또래에 대한 동조성도 극대화되는데, 이들은 집단의 수용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또래집단의 행동양식에 일치시키려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28]. 이러한 특성을 갖는 가해학생들은 또래관계의 의존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또래 사이에서 인기와 인정을 얻기 위해 학교폭력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김은진(2001)과 이희경(2002)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조성은 문화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립적 행동에 대한 동조성이 가해동조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가 있다[29,30].

자기주장성: 자기주장적인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더 신속한 반응을 보이며 타인의 요구에 그대로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행동변화를 요구한다[31]. 반면, 자기주장성이 낮은 사람은 감정 표현, 대중 앞에서의 요청 등을 잘하지 못한다. 유귀순(2001)은 가해자 집단의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지속에 있어서 부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고하였고[32], 일부 가해자들은 괴롭힘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신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가해행동에 동참한다[33,28]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불안을 느끼거나 방해물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편안하고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기주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가해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충동성, 우울과 불안, 또래동조성과 낮은 자기주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심리적인 특성 중의 하나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면서 충동적인 특성을 나타내지만,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가 불안정하지는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동성은 이들을 구별하는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동적인 가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정서는 사실이나 거부, 그리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에서 오는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를 포함한다. 아울러 또래관계에 의존하는 가해자의 경우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충동적이기보다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래의 의존성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성향으로 또래동조성과 낮은 자기주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 시점 6개월 이전에 학교폭력 가해 처분을 받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한 학생들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부의 협조를 얻어서 설문 참여에 동의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었다. 총 86개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74개의 자료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53명(74.6%), 여자가 18명(25.4%)이었고, 평균 연령은 14.91세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가 44명(62%), 고등학교가 27명(38%)으로 중학생이 많았다. 또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0명(14.1%)인 것을 볼 때, 가해자 중에 14.1%는 피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횟수는 1회(44명, 62%)가 가장 많았고 2회(1명), 3회(1명), 5회(1명)나 된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어서 상승적으로 가해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자료 수집

대상자 모집 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행하였으며, D시 소재 가해자 전문치료기관과 D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부장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폭력 가해 처분을 받고 특별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3 측정도구 선정 절차

기존의 문헌 연구를 통해 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구성요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척도는 충동적인 성향과 관련하여 충동성 척도와, 정서적인 불안정을 측정할 수 있는 우울,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또래와의 심리적인 의존성이 강한 또래동조성과 자기표현이 낮아서 또래에 동조하게 되는 특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주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각 척도들 간 상호상관관계를 살펴 본 후, 상호상관이 낮은 척도들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을 위한 측정도구는 인지충동성, 무계획충동성, 우울, 불안, 또래동조성중립, 그리고 주장성이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유형 구분을 위한 척도 선정에 사용된 문항들을 총점으로 환산하여 상호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예측변인 간 상관이 클수록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 간 상관의 절대값이 .01 ~ .5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으므로 대체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32].

(Table 1) Cross correlation table**(N=74)**

	1	2	3	4	5	6	7	8
	Depression	Anxiety	Cog. Impulsivity	Exercise Impulsivity	Unplanned Impulsivity	Neutral Peer conformity	Antisocial Peer conformity	Self assertion
1	-							
2	.55**	-						
3	.15	.03	-					
4	.08	.08	.17	-				
5	.00	-.13	.34**	.42**	-			
6	.05	-.06	.07	-.24*	-.13	-		
7	.26*	.12	.35**	.31**	.23	.27*	-	
8	-.33**	-.34**	.15	.01	-.10	-.10	-.44**	-
M	2.48	1.96	3.18	3.05	3.17	2.75	2.45	2.43
SD	.87	.75	.87	.78	.59	.65	.78	.66
Skewness	.35	.19	.12	-.21	.17	-.34	-.01	-.13
Kurtosis	-.86	-.90	-.32	.11	.77	.17	-.09	-.15

** $p < .01$, * $p < .05$.

2.4 측정도구

2.4.1 충동성

Patton 등(1995)이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Barratt 충동성 검사-II를 허심양, 오주용, 및 김지혜(2012)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5]. 이 척도는 인지 충동성 8 문항, 운동 충동성 11문항, 무계획성 충동성 11문항 등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 충동성은 문제 해결 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응답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을 측정하고, 운동 충동성은 즉흥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향을 측정하며, 무계획성 충동성은 일에 착수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성향을 측정한다. 이 척도 중, 심리학 교수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서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인 인지 충동성 2문항, 무계획성 충동성 3문항을 사용하였다. 운동충동성은 충동성의 다른 하위요인들과 상관이 낮았으며, 오히려 또래동조반사회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운동충동성은 최종 요인에서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충동성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8, 하위요인으로 인지 충동성은 .68, 무계획 충동성은 .47로 나타났다.

2.4.2 우울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Derogatis(1977)가 개발하고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SCL-90-R 중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36]. SCL-90-R은 검사 당일을 포함하여 지난

7일 동안의 심리적 상태를 측정하는데, 각 증상을 '전혀 없다'에서 '아주 심하다'에 이르는 5단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의 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삶에 대한 관심의 철수, 활력의 상실, 절망감 및 자살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이루어진 임상적으로 우울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13문항 중에서 심리학 교수 2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요인부하량이 높은 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4.3 불안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Derogatis(1977)가 개발하고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SCL-90-R 중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5단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신경과민, 긴장, 초조, 두려움 및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으로 이루어진 10문항 중에서 심리학 교수 2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요인부하량이 높은 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불안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2.4.4 또래동조성

Berndt(1979)가 사용한 반사회적, 중립적 동조성 척도를 한국 상황에 맞게 오경희(1990)가 타당화한 또래동조성 척도를 사용하였다[37]. 중립적 행동은 일상적인 어떤 활동을 더 좋아할 때 또래들이 다른 활동에 그들과 합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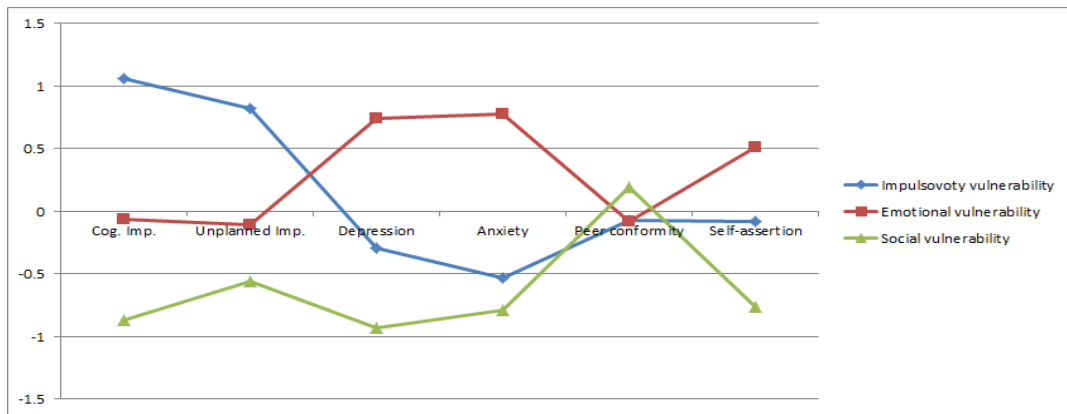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며, 반사회적 행동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수행하기를 주저하는 행동을 또래들이 제안하는 것이다. 이들 16문항은 중립적 행동에 관한 8문항,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교수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서 요인부하량이 높은 3 문항씩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또래동조반사회성은 충동성 그리고 또래동조중립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서 또래에 의존하는 성향을 의미 있게 구분하는 척도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그에 반해 또래동조중립성은 다른 척도들과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또래에 의존하는 성향을 구분하는 척도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또래동조중립성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매겨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동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51이었다.

2.4.5 주장성

주장성 척도는 Rakos와 Schroeder(1980)가 제작한 척도를 변창진과 김성희(1980)가 우리 문화 수준에 맞게 변안한 것을 이현경(1991)이 재구성한 것이다[38]. 이 검사의 문항은 총 20문항이고,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교수 2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5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Likert 척도에 따라 각 문항의 반응 양식은 5단계로 모든 문항은 역채점을 하며, 역채점 점수가 높을수록 주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장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0으로 나타났다.

2.5 자료 분석 방법

유형화를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39]. 우선, 여섯 가지 척도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투입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군집중심값을 초기값으로 이용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 Clustering patterns using a standardized score

[Table 2] Score comparison of the measure according to the six cluster (N = 74)

Scale	Cluster1 Impulsive vulnerability (N = 19)		Cluster2 Emotional Vulnerability (N = 34)		Cluster3 Social vulnerability (N = 21)	
	M	SD	M	SD	M	SD
	Cognitive impulsivity	1.06	.59	-0.06	.75	-0.87
Unplanned impulsivity	.82	.92	-0.11	.88	-0.56	.78
Depression	-0.29	.79	.74	.76	-0.93	.44
Anxiety	-0.53	.73	.78	.66	-0.79	.69
Peer conformity	-0.07	.99	-0.08	.92	.19	1.13
Self-assertion	-0.08	.89	.51	.88	-0.76	.76

※ Numbers in bold in the above table means the highest score (However, the lowest score being Self-assertion)

3. 결과

각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위해 인지충동성, 무계획충동성, 우울, 불안, 또래동조성, 주장성의 여섯 개 척도를 사용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군집 간 거리를 위해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적용하였고, 군집 내 최소 분산을 위해 워드(Wards)방법을 적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특성에 근거하여 최적의 군집 수를 찾기 위해 자료 군집 과정에서 나타나는 덴드로그램을 검토하고 군집화 일정표를 참고하여 군집 내 변산은 최소화 하고 군집 간 변산은 최대로 하는 군집화 계수 변화폭과 해석 가능성을 바탕으로 집단의 수를 세 개로 결정하였다. 이후 2단계에서는 군집중심값을 초기값으로 투입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집단 1은 19명(25.7%), 집단 2는 34명(45.9%), 집단 3은 21명(28.4%)으로 나타났다. 3개의 군집의 형태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값을 이용한 최종 군집 프로파일은 [Fig. 1]에 제시하였으며, 각 집단 별 여섯 개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각 집단의 특징을 여섯 개의 척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군집 1은 인지충동성($M=1.06$, $SD=.59$)과 무계획충동성($M=.82$, $SD=.92$)이 평균 이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장 높은 반면, 우울($M=-.29$, $SD=.73$), 불안($M=-.53$, $SD=.73$), 또래동조성($M=-.07$, $SD=.99$), 주장성($M=-.08$, $SD=.89$)은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즉,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인 불안정한 특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또래에 동조하는 성향과 주장성도 낮은 반면, 집중력이 부족하고 무계획적인 충동성은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유형에 속하는 가해 학생들은 충동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가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유형은 ‘충동적 취약성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우울($M=.74$, $SD=.76$)과 불안($M=.78$, $SD=.66$)의 점수가 평균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인지충동성($M=-.06$, $SD=.75$)과 무계획충동성($M=-.11$, $SD=.88$), 또래동조성($M=-.08$, $SD=.92$)은 평균 이하로 낮고 주장성($M=.51$, $SD=.88$)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점수를 보였다. 이는 충동성이 낮고 또래에 동조하는 성향도 역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충동적이거나 또래에 동조하는 성향으로 인해서 가해 행동을

하기 보다는,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가해행동을 하게 되는 유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집단은 ‘정서적 취약성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또래동조성($M=.19$, $SD=1.13$)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평균 이상으로 높으면서 동시에 주장성($M=-.76$, $SD=.76$)은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충동성(인지충동성: $M=-.87$, $SD=.73$; 무계획충동성: $M=-.56$, $SD=.78$)이나 우울($M=-.93$, $SD=.44$), 불안($M=-.79$, $SD=.69$) 등은 평균 이하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즉,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은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집단에 비해서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충동적인 성향 역시 덜한 반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또래에 동조하는 성향이 가장 높으면서 동시에 주장성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또래관계에 민감하며, 또래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지 못하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이 집단은 ‘사회적 취약성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4. 논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심리적인 특성에 따라 의미 있게 구분 가능한 유형이 존재하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인지충동성, 무계획충동성, 우울, 불안, 또래동조성, 그리고 주장성의 여섯 개의 척도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섯 개의 척도 점수에 따라 크게 세 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집단에 비해서 무계획충동성 경향성을 보이면서, 동시에 우울과 불안 점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은 특성을 보이는 군집 1(충동적 취약성 군집)은 이들이 충동적인 성향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적을 위해 현재의 만족을 지연하거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적고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 [40,41]를 지지한다. 또한,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취약한 환경에 처했을 때 괴롭힘의 가해행동이나 비행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42,43]을 지지한다. 즉, 충동적인 사람은 조금이며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무계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반응은 빠르지만 틀린 반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격적인 반응으로 인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측하기도 전에 곧바로 반응을 함으로써 결국 자신들의 환경에서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44]는 점을 반영한다.

둘째, 군집 2(정서적 취약성 군집)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우울과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충동성은 낮은 집단으로 이들은 정서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해행동을 하게 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영과 장은진(2015)의 연구에서도 정서적으로 취약한 유형은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이 촉발되어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미충족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시도로 부정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한다고 한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셋째, 군집 3(사회적 취약성 군집)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또래동조성은 가장 높은 반면 주장성이 가장 낮고 충동성과 우울, 불안은 낮은 유형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립적 동조성이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0]와 또래관계에서 괴롭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가해 행동에 동참하게 된다는 결과[33,28]를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표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표집 지역의 제한이 있었다. 또한, 가해학생의 질문 응답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거나 주의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문항에 고정 반응하는 패턴이 여러 사례에서 발견되어 그러한 사례는 제외하다보니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해행동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연구결과를 학교장면이나 나아가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모색하고 모집단 표집에 대한 체계와 지원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검사도구의 제한점으로 각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수가 적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문항에 비해 인지 충동성 문항이 2개 문항 밖에 되지 않아서 그 변인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다면 각 유형 구분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개념 설정과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형구분을 위한 척도로 적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주된 이유는 그 실용성에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특성 상 주의집중력이 부족하고 자기조절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적은 수의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려다보니 문항 간 평균 상관계수와 문항 수의 함수로 계산되는 문항간일치도 즉, Cronbach alpha 계수가 높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융복합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할 때 맥락요인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이 수월하면서도 가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적인 특성을 고려한 유형 분류를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개인 심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융복합적인 가족기능 등을 포함하는[9,10] 맥락요인도 함께 고려한 다차원적인 융복합적 유형 분류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은 발달특성 상 어떤 연령보다도 다양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시기이며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학교 현장이나 임상 장면에서 만나게 될 경우 매우 다양한 배경과 원인에 의해 가해행동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개입은 일반적이고 일률적인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심리적인 특성에 따라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여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심리적인 특성을 고려한 유형 분류는 가해행동이 드러나기 이전에 이들이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예방적인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행동을 기준으로 분류한 외국연구들[16,17]과도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각 세부

유형에 적절한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의 효율성을 실제적으로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교사나 기관의 담당자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나 자녀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개입 의지 및 능력에 대해 학생들이 갖는 평가와 신뢰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주변 학생들의 대응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학생들의 또 다른 폭력행동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담당 교사나 상담자가 앞서 제시한 유형을 참고하여 면담을 실시한 후 각 학생별로 유형을 분류하여 그 유형에 적합한 개입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지도 및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이나 가해자 유형에 대한 이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가해 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킴으로써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해자 유형 구분을 위한 근거는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등 학교폭력의 문제를 보다 성공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각 세부유형에 적합한 상담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가능하다면 개인의 심리적 특성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의 응복합적 환경맥락 요인을 함께 고려한 유형분류와 그에 따른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욱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관한 연구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is based on a revision of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Lee, Mi-Young (2015.6.30) and is also based on a paper presented in the form of a poster at the 2015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REFERENCES

- [1] Korea Association of School Violence Counseling. "School Violence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Seoul: Yangseowon. 2013.
- [2] Youth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2013 Press on the results of the National Survey on School Violence". 2014.
- [3] J. J. Jeong. "Ecological consideration of factors inducing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 11, No. 3, pp. 331-350.
- [4] Bender, D., & Losel, F. "Bullying at school as a predictor of delinquency, violence and other anti-social behavior in adulthood". Crimin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Vol. 21, No. 2, pp. 99-106. 2011.
- [5] Y. S. Kim. "Influencing factors on bullying of elementary school pupil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6] H. J. Park, M. K. Jeong, J. H. Park. "Research on development of programs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7.
- [7] H. J. Kang. "Studies on the rearing of parents and school violence of children : focusing on the role of the school social worker for parent interven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1998.
- [8] S. C.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concept and school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0.
- [9] M. S. Oh.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97-203, 2015.
- [10] C. O. Jang, "A Study on Convergence Family Function and parameter validation fusion of youth protection fact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21-126, 2015.
- [11] W. S. Choi. "The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school violence". Journal of Family

- Welfare, Vol. 10, No. 2. pp. 95-111. 2005.
- [12] K. S. Kim. "The relations among attachment, peer conformity and mass bully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y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4.
- [13] S. Y. Han.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and sh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aggression in bully and bully-victim groups".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17, No. 1, pp. 125-143. 2010.
- [14] Schwartz, D. "Subtypes of victims and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28, pp. 181-192. 2000
- [15] H. W. Kim, H. K. Le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ffecting the behaviors of bullies and victims at school bullying".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14, No. 1. pp. 45-64. 2000.
- [16] Elliott, D. "The assumption that theories can be combined with increased explanatory power: theoretical Integrations". In R. F. Meier (Ed.), *Theoretical methods in criminology* (pp. 123-149). Beverly Hills, CA: Sage. 1985.
- [17] Macklem, G. L. "Bullying and teasing: Social power in children's groups". Boston, MA: Kluwer Academic Pub. 2003.
- [18] M. Y. Lee, E. J. Cha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ntext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d by School Violence Perpetrators".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8, No. 3, pp. 115-140. 2015.
- [19] H. Y. Kim, S. K. Ann.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bullies and the bullies' types in school violen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3, No. 5. pp. 19-40. 2013.
- [20] 土屋基規, 添田久美子, P.K.スミス, 折出健二. "いじめととりくんだ国々. ミネル ヴァ書房". 2005.
- [21] Evenden, J. L. "Varieties of impulsivity". *Psychopharmacology*, Vol. 146, pp. 348-361. 1999.
- [22] S. K. Lee, I. S. Oh. "Analysis on mediating effects of guilt between impulsivity, aggression, and direct/relational bullying".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4, pp. 2017-2032. 2012.
- [23] H. K. Lee. "Classroom story1: Bully,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Seoul: Beopmunsa. 2000.
- [24] K. M. Kang. "Christian Counseling for Adolescence school violence". *Journal of Gospel and Counseling*. Vol. 16, pp. 64-92. 2011.
- [25] Anthony, E. J. "The impact of mental and physical illness on family lif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50, pp. 1779-1791. 1970.
- [26] Yen, C. F., Ko, C. H., Yen, J. Y., Tang, T. C., Chang, Y. P., & Chung, C. P.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 aggression perpetrators, victims, and perpetrator-victims". *Comprehensive Psychiatry*, Vol. 51, No. 1, pp. 42-48. 2010.
- [27] Wolff, J. C., & Ollendick, T. H. "The comorbidity of conduct problems and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5, No. 7, pp. 618-623. 2006.
- [28] Lloyd, M. A. "Adolescence". New York, NY: Harper & Row. 1985.
- [29] E. J. Kim. "On the relation adolescents' cultural tendency,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peer conformit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eokang university. 2001.
- [30] H. K. Lee. "The effects of empathy and conformity on perception of victims and assailants of school bullying".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Vol. 16, No. 4, pp. 23-40. 2002.
- [31] Eisler, R. M., Miller, P. M., & Hersen, M. "Components of assertiv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7, pp. 295-299. 1973.
- [32] G. S. You. "The effects of aggression and conformity on peer victimiz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01.
- [33] Y. T. Kim, H. S. Park. "Juvenile Parent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Youth Counseling*. pp. 1-146. 1997.
- [34] Heppner, P. P., & Heppner, M. J. "The gender role conflict literature: Fruits of sustained commitmen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36, No. 3, pp. 455-461. 2008.
- [35] S. Y. Heo, J. Y. Oh, J. H. Kim. "The korean version

-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th version: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31, No. 3. pp. 769-782. 2012.
- [36] K. I. Kim, J. H. Kim, H. T. Won. "SCL-90-R manual". Seoul: Jungangjucksung. 1984.
- [37] K. H. Oh. "A study on the peer conformity development of child".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ookmyoung girls' university. 1990.
- [38] H. K. Lee. "The Effect of Assertiveness Training on the reduction of child aggression and assertion promo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yeomyoung university. 1991.
- [39] Hair, J. F., Jr., & Black, W. C.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 [40] Jenkins, R. C., & Glickman, S. "Patterns of personality organization among delinquents". *Neurotic Child*, Vol. 6, pp. 329-339. 1960.
- [41] Schalling, D. "Psychotherapy-related personality variables and the psychophysiology of socialization". In R. D. Hare & Schalling (Eds.), *Psychopathic behavior*. New York: Wiley. 1978.
- [42] Y. A. Chang, Y. J. Lee, B. K. Song. "The effect of personality and stress on bullying of teenager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 Vol. 11, No. 1. pp. 101-119. 2007.
- [43] Gorenstein, E., & Newman, J. P. "Disinhibitory psychopathology: A new perspective and a model for research". *Psychological Review*, Vol. 87, pp. 301-315. 1980.
- [44] H. Y. Cho. "A study on the juvenile internet game addiction and personality trai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01.

이 미 영(Lee, Mi Young)



- 1993년 2월 : 충남대학교 통계학과 (이학사)
- 2010년 2월 : 침례신학대학교 상담 심리학과(문학석사)
- 2015년 8월 : 침례신학대학교 상담 심리학과(철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외래교수
- 2015년 8월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상담, 임상, 중독
- E-Mail : mylee603@naver.com

장 은 진(Chang, Eun Jin)



- 199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심리학과(문학사)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심리학과(문학석사)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문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임상, 학교, 발달 심리
- E-Mail : ejchang@kbtus.ac.kr